

## ● 『발명하는 사람들』에 말한다

## 가을은 색깔이, 아이디어는 디자인이 완성한다



김 병 오

한산중학교 교사  
(ajukbo@hanmail.net)

햇살이 눈부신 가을,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색깔은 따뜻하고 편안한 정서를 느끼게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화사함을 뽐내 눈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울 때가 있다. 이 아름다운 가을 빛깔 속에 숨겨져 있는 감각은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발명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0월의 가을은 그 느낌만으로도 분위기와 마음을 움직이게 하나, 결국은 색깔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이디어도 다양한 요인과 노력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지만 최종적인 부가가치는 디자인에 의해 결정된다. 즉 아이디어 제품의 디자인은 이제 기술력 못지않게 구매자들의 상품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미국 애플사는 '98년 속이 들여다보이고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깜찍한 디자인의 아이맥 시리즈 컴퓨터로 시장에 화려하게 부활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레인콤은 '아이리버' 디자인을 바꾸면서 2002년부터 MP3 플레이어 국내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은 개별 상품과 기업에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디자인 산업의 혁신이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디자인 산업 육성에 정부가 나서 21세기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의 하나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을 개발하여 펼친다고 하여도 곧바로 디자인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이 디자인 발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는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인 디지털 가전, 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부가가치를 가진 유망 산업 분야의 디자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기술 로드맵 개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키우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04년 8월). 즉 이 로드맵위원회에서 디지털 가전제품,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기초로 산업별 또는 공통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기술개발 전략이 수립되어 경쟁력 있는 디자인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은 자유무역시대의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자적인 자기 회사만의 디자인을 갖는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한판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 대결에서 기업이 관심을 갖아야 할 포인트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이다. 20대는 디자인, 30대는 품질을 선호하고 있어 가격은 디자인과 품질 다음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생활에 대한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때문에 디자인이 소비성향의 중

요한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 KIDP의 한 조사에 따르면 수입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 53%가 디자인이 좋기 때문이라는 통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 디자인이 신기술이다

최근 K자동차에서 내놓은 신차 '스포티지'는 빼어난 디자인으로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차의 초반 인기는 디자인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자체 분석되고 있을 만큼 소비자들이 디자인을 중요한 구매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큐비에스에서 생산하는 주차권 자동발매기는 상자 모양의 딱딱한 디자인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꿔 30%에 가까운 매출신장을 이루었고, (주)가온미디어에서 생산하여 유럽과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위성방송수신기는 오히려 디자인을 단순한 모양으로 바꿔 300%의 매출신장을 이루었다는 결과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초소형 전화기 성공사례를 알아보자. 중소기업 디자인 BEST 10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초소형 전화기(일명 사오정 전화기)'는 눈에 띄는 디자인

면서 전화를 받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아이디어로 현실화시킨 제품이 바로 초소형 전화기이다. 이 제품은 동료 6명의 아이디어를 모은 지 9개월 만에 개발하게 되었다.

이 초소형 전화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첫번째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깜찍한 디자인으로 내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 일찍 눈을 돌린 것이다. 즉 디자인이 바로 신기술인 것이었다. 디자인의 승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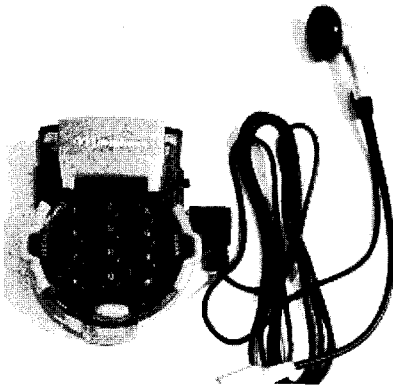
## 맞춤 + 디자인 = 소량 발명

이제는 디자인도 맞춤시대이고 생산도 맞춤시대이다. 즉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변함에 따라 발명도 다품종 소량발명 시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도 맞춤발명을 해야 한다.

세계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쓸 수 있는 발명이 최선의 것이라면, 우리 발명하는 사람들은 최선보다는 차선에 먼저 도전해야 좀더 쉽게 성공발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을까?

남대문 메사의 맞춤 속옷 브랜드 '보쉬르'가 주 고객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을 겨냥하여 패션 속옷에 나만의 개성을 연출하고자 하는 기능을 추가한 맞춤 속옷으로 뜨거운 눈길을 받고 있는 점이나, 한국타이어에서 마모가 적고 고속주행에 맞추어 내놓은 '벤투스',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미니밴 전용 '엑스타'처럼 레저와 스포츠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나, 라마즈분만, 아로마 마사지분만, 그네분만, 수중분만 등 이제 출시도 맞춤분만 시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맞춤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는 디자인이다.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디자인이 경쟁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필립스는 제품 성공 여부의 80%를 디자인이 차지한다는 비전을 발표했고, 소니는 '아름답지 않은 제품에 소니 로고를 붙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초일류 다국적 기업들은 디자인이나 감성을 고려한 제품 발명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은 순수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것 같아 무형의 자산인 디자인 개발에 주력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 싶다.



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히트상품의 대열에 올라 YTC 텔레콤의 지영천 사장을 아이디어 하나로 2년 만에 1백억원의 돈방석에 올라앉게 한 주인공이다.

밤새 컴퓨터 작업을 할 정도로 멀티미디어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던 지 사장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작업 리듬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래서 '양손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

## ■ 나도 발명가 ■

## 작은 페트병을 이용한 '모래시계 만들기'

모래시계(hour glass)는 가운데가 갈록한 호리병 모양의 유리그릇 상반부에 마른 모래를 넣고, 중력에 의하여 서서히 아래로 떨어진 모래의 부피로 시간을 재는 시계장치로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8세기경 프랑크 샤르트르의 사제 리위트프랑이 고안했다고 한다.

현재도 3분짜리 양치용이나 5분, 10분 등의 사우나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계측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도 소형 페트병을 활용하여 '간단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자.

## 준비물

소형 페트병 2개, 일반 페트병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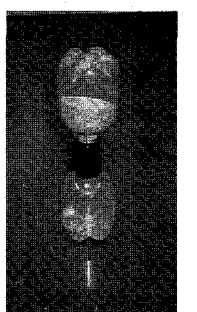
고운 모래 약간, 체, 점정 테이프, 가위, 약간의 고무찰흙, 콘 아이스크림 밑에 있는 조그만 깔대기 2개

## 만드는 과정

- ① 페트병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속을 말린다.
- ② 모래를 가는 체로 걸러서 일정한 크기의 것만 골라낸다.
- ③ 콘 아이스크림 아래 있는 깔대기를 페트병 입구에 넣고 고무찰흙을 이용해 고정한다.
- ④ 모래의 양을 적당하게 넣고 시간을 측정한다(구멍크기와 모래 양에 따라 시간 결정).
- ⑤ 모래양이 결정되면 일반 페트병에서 잘라낸 부분으로 입구를 감싼다.

⑥ 입구를 점정 테이프로 봉한다.

이 제품을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를 닦을 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3분 모래시계'로 만들면 좋다. 물론 제품에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속에 꼬마전구를 넣거나 모래의 색깔을 채색하여 제작하면 더 멋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자료제공 : 한산중학교 김병오 교사